

# 현안과 과제

- 수출 경기 리질리언스(resilience)의 강화  
- 하반기 수출의 리스크 요인과 전망

# 목 차

## ■ 수출 경기 리질리언스(resilience)의 강화

- 하반기 수출의 리스크 요인과 전망

Executive Summary .....	i
1. 개 요 .....	1
2. 최근 수출 경기 동향 .....	1
3. 수출 경기의 리스크 요인 .....	3
4. 하반기 수출 경기 전망과 시사점 .....	8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제 연 구 실 : 주 원 경제연구실장 (02-2072-6235, juwon@hri.co.kr)

## Executive Sum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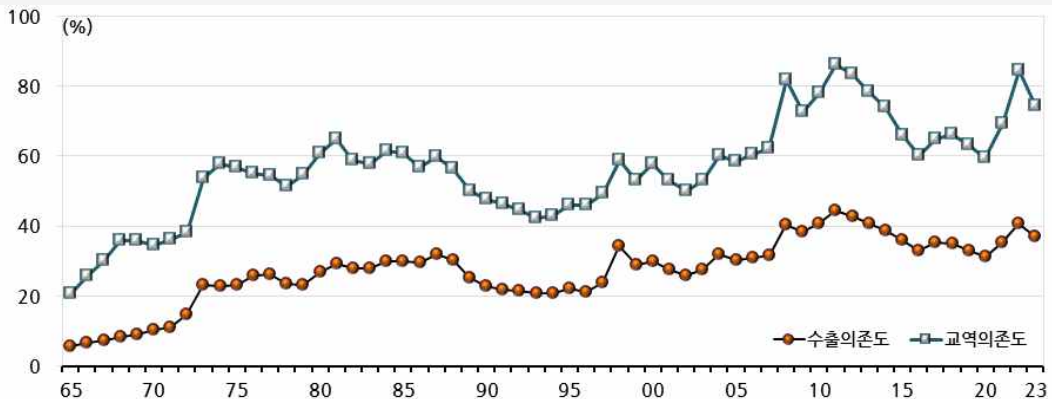
### □ 수출 경기 리질리언스(resilience)의 강화

- 하반기 수출의 리스크 요인과 전망

#### ■ 개요

한국 경제는 수출이 내수를 견인하면서 전체 경제를 수출이 선도하는 수출의존적 경제 성장 구조를 가진다. 한국 경제의 수출의존도(상품수출/GDP)는 2023년 현재 36.9%로 2020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주요국 대비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IMF-IFS 통계를 이용하여 계산해 보면 2021년 기준으로 경제 규모(GDP) 20위권 내 국가군에서, 한국(수출의존도 35.4%)은 네덜란드(81.5%), 스위스(46.8%), 독일(38.2%), 멕시코(37.7%)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수출의존도를 가진다. 또한 한국의 수출의존도는 경제 규모 상위 국가(top 3)인 미국(7.4%), 중국(18.7%), 일본(15.0%)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 한국 경제의 수출의존도(수출/GDP) 및 교역의존도(수출입/GDP) 추이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한국은행 및 관세청 통계를 이용한 계산),

#### ■ 최근 수출 경기 동향

최근 수출 경기는 그동안의 침체를 벗어나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주력 시장과 주력 품목의 수출이 반등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예상 보다는 수출 경기의 리질리언스(resilience) 강도가 강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전체 수출 증가율은 2023년 10월에 증가세로 전환되어 올해 4월까지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 중이다. 수출 증가율은 지난 2022년 10월 ~ 2023년 9월까지 12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를 지속한 바 있다. 그러나, 2023년 10월 이후 플러스 전환되면서 4월까지 7개월 연속 증가세 유지하고 있다. 수출 시장별로는 대 미국 수출 경기가 대 중국 수출 경기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하면서 현재 전체 수출 경기를 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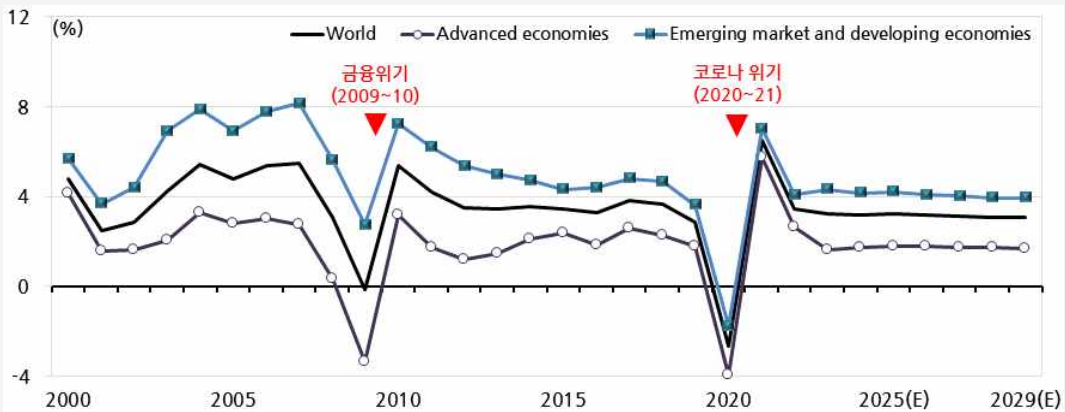
인 중이다. 대 미국 수출 증가율은 2023년 8월부터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 4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24.3%를 기록 중이다. 한편, 대 중국 수출 증가율은 2022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다가, 2024년 증가세로 전환되어 4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9.9%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대부분 수출 품목이 수출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일부 품목은 침체를 지속 중이다. 기저효과(수출 증가율은 1년 전 같은 달 대비 기준으로 작성)의 영향으로 대부분 품목의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단,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철강, 이차전지, 전기차 등은 여전히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 수출 경기의 리스크 요인

① 세계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 국면 진입

세계 경제의 저성장 국면 진입으로 한국 수출 확장 속도가 제약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IMF에 따르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2011~19년) 연평균 3.5%에서 이후(2022~29년) 3.2%로 하락하는 추세다. 선진국 경제성장률은 팬데믹 이전(2011~19년) 연평균 1.9%에서 이후(2022~29년) 1.8%로 하락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개도국·신흥시장 경제성장률은 같은 기간 4.8%에서 4.1%로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한다는 것은 글로벌 교역도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한다는 말과 동일하기 때문에, 향후 한국의 수출 증가 속도를 코로나 이전의 높은 수준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는 의미이다.

< World, AE, EM 경제성장률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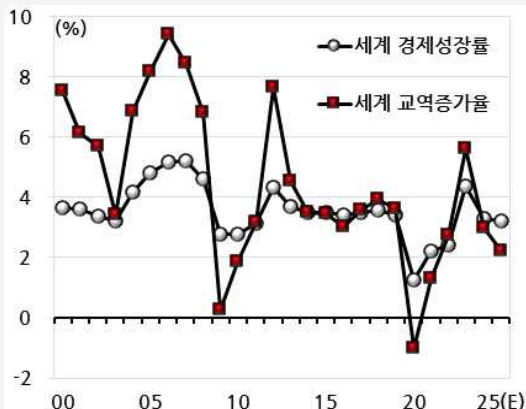
기 간	세계 경제성장률(연평균)	선진국 경제성장률(연평균)	개도국·신흥국 경제성장률(연평균)
2000~2008	4.3%	2.4%	6.3%
2011~2019	3.5%	1.9%	4.8%
2022~2029	3.2%	1.8%	4.1%

자료: 현대경제연구원(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4 를 이용한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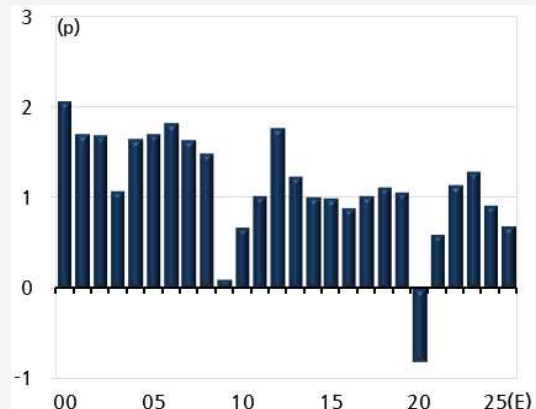
## ②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교역탄성치의 하락

세계 경제의 저성장 국면이 전개되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교역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력마저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역의 기본적인 동기는 교역 당사자 간 상호 이익(비용 절감, 자원 집종의 효율성 등을 통한 부가가치 증가)의 보장인데, 최근 세계 경제 전반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GVC의 비중이 축소되고 DVC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이다. 세계 경제의 교역탄성치(교역증가율/경제성장률)는 세계 경제 전반이 성장하는 데에, 교역이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다. 세계 교역탄성치는 2023년 1.3p에서 2024년 0.9p 그리고 2025년에 0.7p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세계 교역 탄성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보호무역주의의 대두로 한국 수출의 확장이 당분간 크게 제약받을 우려가 존재한다.

< 세계 경제성장률 및 교역증가율의 3개년도 이동평균 추세 추이 >



< 세계 교역탄성치 (교역증가율/경제성장률) 추이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IMF 통계 -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4를 이용한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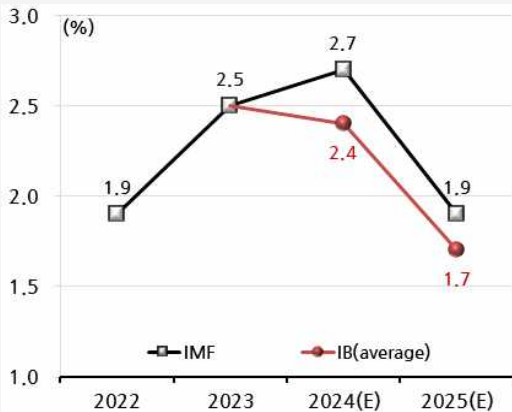
주: 경제성장률 및 교역증가율은 3개 연도 이동평균.

## ③ 핵심 수출 시장인 G2의 불확실성

우리 수출의 약 42%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 경제의 방향성에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우리 수출 전체에서 차지하는 미·중 시장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경제의 향방이 우리 수출 경기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미국과 중국 시장에 대한 수출은 2023년 기준으로 전체 수출의 42%이며,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23.7%(중국 본토 19.7%, 홍콩 4.0%), 대 미국 수출 비중은 18.3%에 달한다. 우선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보면, 국제기구와 민간의 시각차가 존재하면서 그 방향성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IMF는 최근 2024년 미국 경제 성장률을 2023년(2.5%)보다 높은 2.7%로 예측하였는데, IB들은 평균 2.4%로 소폭 하락을 전망하고 있다. 특히 IMF나 IB나 모두 2025년 경제성장률이 2%를 하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는 추세적으로는 이미 미국의 경기 고점이 형성되었거나 조만간 형성되고 경기가 내려가는 방향임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중국 경제의 최근 실물 지표가 미약하나마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나, 중국 경기 회복의 관건인 주택시장의 조정이 장기화되고 있어 중국 경제의 방향성에도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

< 미국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IMF, Bloomberg.  
 주: IB 전망치는 약 60개 투자은행 전망 평균치.

< 중국 주택가격지수 증가율 추이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중국 国家统计局 통계를 이용한 계산).

④ 지정학적 리스크의 지속

최근 국제유가나 국제원자재가의 랠리는 보이지 않고 있으나,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글로벌 공급망에 다시 문제가 발생하면서 교역 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최근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지역의 갈등이 완화되는 분위기가기는 하지만, 우발적 사건의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그 경우 원유 생산과 수송의 차질로 재차 '오일 쇼크'가 나타날 여지가 있다. 두바이유 가격은 2022년 3월 일간 가격으로 배럴당 약 128달러까지 상승한 바가 있으나, 최근에는 배럴당 80~90달러의 박스권 조정을 받고 있다. 이스라엘-하마스 간 교전, 예멘 후티 반군의 상선 공격, 이스라엘-이란 간 갈등 등의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중동 지역의 정세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한편,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향 안정화가 이어지고 있으나, 생산 여력이 시장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불안정한 수급 상황이기 때문에, 이상기후나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3월과 4월에 들어 광산물 원자재 가격이 반등하고 있는데, 이는 팬데믹과 고금리 영향 등으로 채굴, 정제 시설에 대한 투자가 크게 감소하여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디리스크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어, 우리의 직접적인 대중 수출 위축과 미·중 갈등에 따른 세계 교역 침체를 경유한 간접적 수출 경기 둔화 압력이 증폭 중이다. 우선 트럼프 노믹스 2.0의 가능성과 미·중 2차 관세전쟁에 따른 세계 교역의 위축이 우려된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중국에 대해 수입관세율을 60%까지 높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는 2018년 대중국 수입관세율을 평균 3% 수준에서 2019년 21%까지 높였었는데, 당시 세계 경제성장률은 2017년 3.8%에서 2019년 2.8%로 하락하였으며, 세계 교역증가율도 같은 기간 5.6%에서 1.2%로 급락하였다. 이에 따라 당시 한국의 전체 수출 증가율은 2017년 15.8%에서 2019년 △10.4%로, 대 중국 수출 증가율은 같은 기간 14.2%에서 △16.0%로 급락하였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규제 강도도 경쟁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미·중 간의 관세전쟁에 따른 글로벌 교역 침체가 예상보다 이른 시간에 시작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의 4배인 100%로 올리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에 중국은 수입차(대형 배기량 엔진)에 대한 관세율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2017~2019년 세계 경제성장률 및 교역 증가율 추이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IMF 통계를 이용한 도시).

< 2017~2019년 한국 총수출 및 대중 수출 증가율 추이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한국은행 및 관세청 통계를 이용한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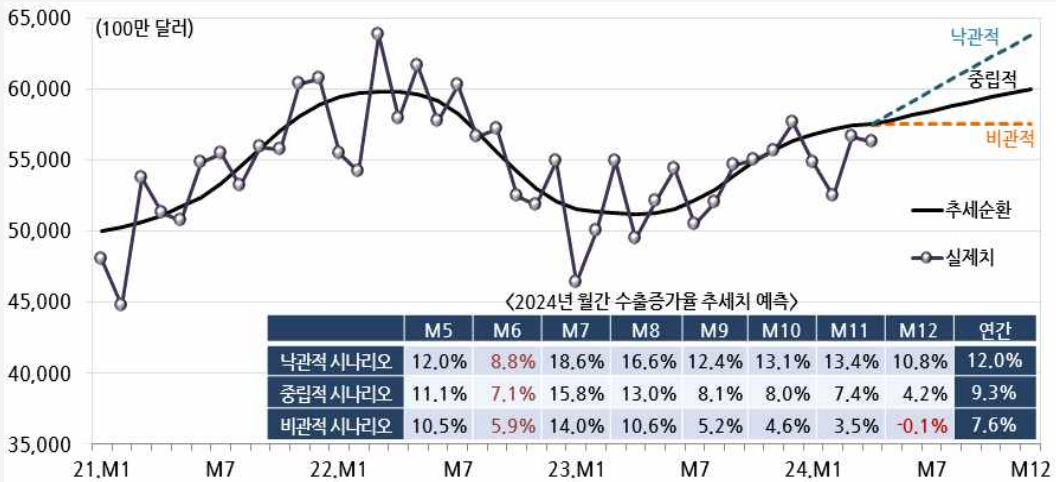
■ 하반기 수출 경기 전망과 시사점

① 하반기 수출 경기 전망

전반적으로 올해 수출 경기는 작년의 침체를 벗어나는 국면에 위치할 것이나, 하반기 수출 회복의 강도는 기대만큼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2024년 중 상저하의 경기 흐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최근의 수출 경기 및 예상되는

리스크 요인들은 지난 1월 전망 시점에서의 전체 조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연간으로 수출 증가율은 2023년  $\Delta 7.5\%$ 에서 2024년 9.3%(1월 현대경제연구원 경제 전망 유지)로 예상된다. 다만, 언급된 수출 경기 리스크 요인들의 발현 여부에 따라 수출 경기의 리질리언스(resilience) 강도에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낙관적 시나리오(12월 638억 달러 - 기존 월간 최대치 추세 가정)의 경우 대체로 월간 두 자릿수 증가율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립적 시나리오(12월 600억 달러 - 추세순환 최대치 추세 가정)의 경우, 9월부터 수출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비관적 시나리오(현 추세치 575억 달러 유지)의 경우 12월 중 마이너스 성장까지도 가능하다.

< 월별 수출 순환 추세 식별 및 하반기 추세치 기준 수출 증가율 전망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주: 1) 추세순환법을 이용하여 추정  
 2) 수출 증가율 전망은 실제치가 아닌 추세치(계절요인/일시적요인 제거) 기준.

②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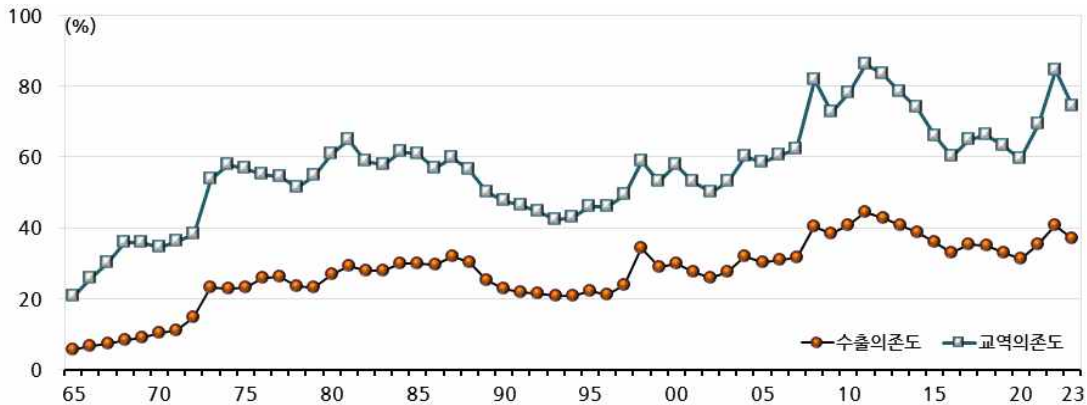
한국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수출 경기의 리질리언스(resilience) 강화를 위하여, 첫째,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수출 경기 회복세가 미약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회복 강도의 강화를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 둘째, 미국의 정치 불안정성에 따른 포퓰리즘 확산이 가져올 시장의 규제 강도 변화와 미·중 갈등 격화에 따른 시장분절화(경제블록화) 심화 가능성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 셋째, 수출 경기의 회복 강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출 회복세가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응하여 내수 부문의 경기 안전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 1. 개요

- 한국 경제는 수출이 내수를 견인하면서 전체 경제를 수출이 선도하는 수출의존적 경제 성장 구조
- 한국 경제의 수출의존도(상품수출/GDP)는 2023년 현재 36.9%로 2020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주요국 대비 비교적 높은 수준
  - 한국 경제의 수출의존도는 2023년 현재 36.9%(교역의존도 74.4%)로 2020년 31.2%에서 높아지는 추세(2022년 40.9%보다는 하락)임
  - IMF - IFS 통계를 이용하여 계산해 보면 2021년 기준 경제 규모(GDP) 20위권 내 국가군에서, 한국(35.4%)은 네덜란드(81.5%), 스위스(46.8%), 독일(38.2%), 멕시코(37.7%)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수출의존도를 가짐
  - 한국의 수출의존도는 경제 규모 상위 국가인 미국(7.4%), 중국(18.7%), 일본(15.0%)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한국 경제의 수출의존도(수출/GDP) 및 교역의존도(수출입/GDP)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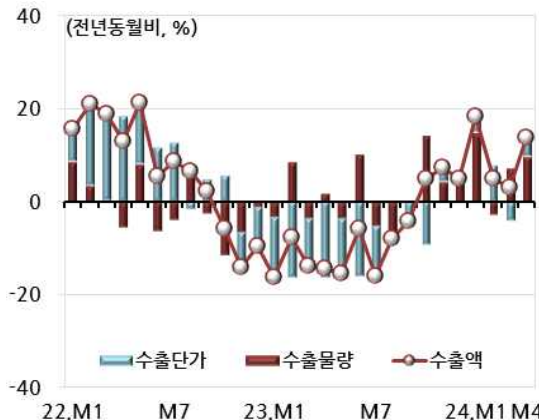
자료: 현대경제연구원(한국은행 및 관세청 통계를 이용한 계산),

## 2. 최근 수출 경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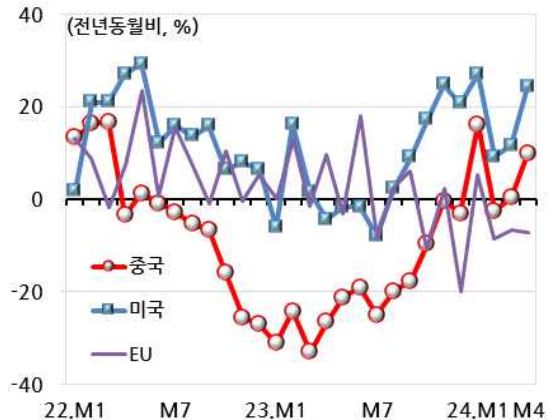
- 최근 수출 경기는 그동안의 침체를 벗어나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주력 시장과 주력 품목의 수출이 반등하는 모습
- 수출 증가율은 2023년 10월에 증가세로 전환되어 올해 4월까지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

- 수출 증가율은 지난 2022년 10월 ~ 2023년 9월까지 12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를 지속한 바 있음
  - 그러나, 10월 이후 플러스 전환되면서 4월까지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우리 제품의 해외 수요의 실질적 회복 여부를 알 수 있는 수출 물량은 올해 3월과 4월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 중임
- 수출 시장별로는 대 미국 수출 경기가 대 중국 수출 경기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하면서 현재 전체 수출 경기를 견인
- 대 미국 수출 증가율은 2023년 8월부터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 4월 중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24.3%임
  - 한편, 대 중국 수출 증가율은 2022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다가, 2024년 증가세로 전환되어 4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9.9%를 기록함
- 대부분 수출 품목의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일부 품목은 침체를 지속
- 기저효과(수출 증가율은 1년 전 같은 달 대비 기준으로 작성)의 영향으로 대부분 품목의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됨
  - 단,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철강, 이차전지, 전기차 등은 여전히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임
  - ※ 4월 현재 수출 증가율은 철강  $\Delta 5.7\%$ , 이차전지  $\Delta 20.1\%$ , 전기자동차(BEV, FCEV, PHEV 3개 차종 모두 포함)  $\Delta 10.1\%$ 를 기록

< 월별 수출 증가율 추이 >



< 월별 지역별 수출 증가율 추이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산업부 및 관세청 통계를 이용한 계산).

### 3. 수출 경기의 리스크 요인

○ (세계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 국면 진입) 세계 경제의 저성장 국면 진입으로 한국 수출 확장 속도가 제약을 받을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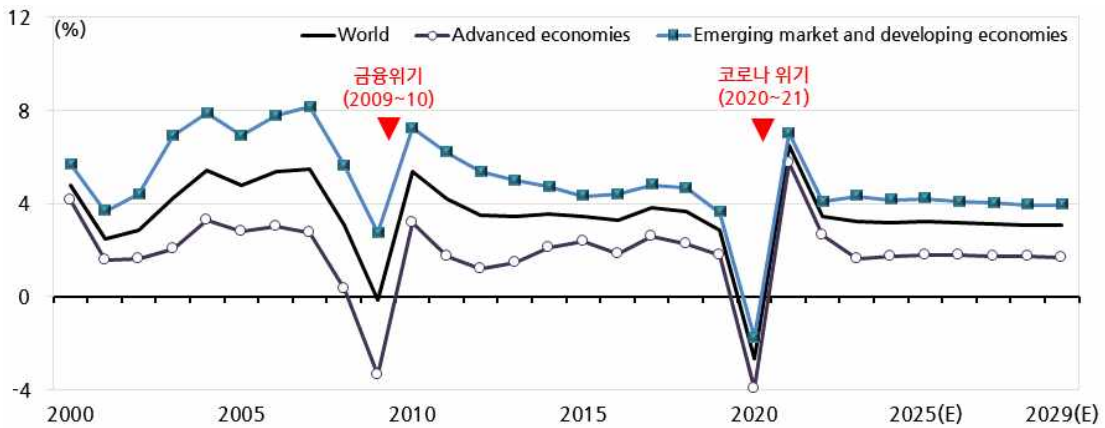
- IMF에 따르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2011~19년) 연평균 3.5%에서 이후(2022~29년) 3.2%로 하락

- 선진국 경제성장률은 팬데믹 이전(2011~19년) 연평균 1.9%에서 이후(2022~29년) 1.8%로 하락하는 것으로 예측됨
- 특히 개도국·신흥시장 경제성장률은 같은 기간 4.8%에서 4.1%로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전망됨

※ 최근 게오르기 에바 IMF 총재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 10년 대비 이후 10년의 세계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저성장 국면이 전개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음

- 세계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한다는 것은 글로벌 교역도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한다는 말과 동일하기 때문에, 향후 한국의 수출 증가 속도를 코로나 이전의 높은 수준으로 기대할 수는 없음

< World, AE, EM 경제성장률 추이 >



기간	세계 경제성장률(연평균)	선진국 경제성장률(연평균)	개도국·신흥국 경제성장률(연평균)
2000~2008	4.3%	2.4%	6.3%
2011~2019	3.5%	1.9%	4.8%
2022~2029	3.2%	1.8%	4.1%

자료: 현대경제연구원(IMF 통계 -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4를 이용한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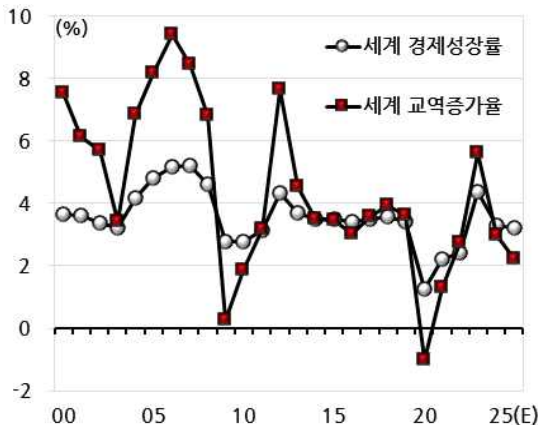
○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교역탄성치의 하락) 세계 경제의 저성장 국면이 전개되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교역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력이 크게 약화되는 추세

- 교역의 기본적인 동기는 교역 당사자 간 상호 이익(비용 절감, 자원 집종의 효율성 등을 통한 부가가치 증가)의 보장인데, 최근 세계 경제 전반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GVC의 비중이 축소되고 DVC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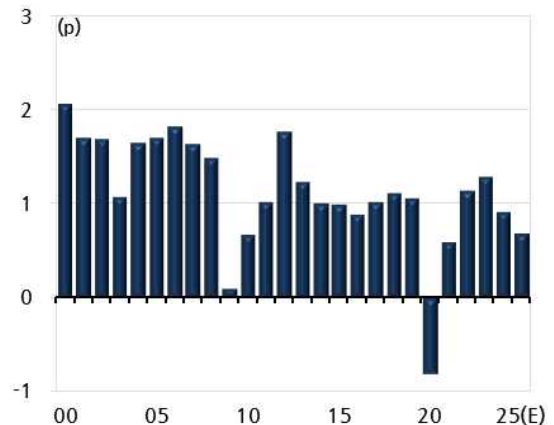
- 세계 경제의 교역탄성치(교역증가율/경제성장률)의 의미는 세계 경제 전반이 성장을 하는 데에, 교역이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임
- 통일된 논의는 없으나, 대체로 경제성장률 한 단위당 교역증가율 한 단위가 대응되는 값인 1p(포인트)가 최소한의 기준치로 보이며, 교역탄성치가 1p보다 높으면 교역이 활성화되어 있고 1p보다 낮으면 교역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게 낮아져 있다고 볼 수 있음
- 세계 교역탄성치는 2023년 1.3p에서 2024년 0.9p 그리고 2025년에 0.7p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세계 교역 탄성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보호무역주의의 대두로 한국 수출의 확장이 당분간 크게 제약받을 우려가 존재

< 세계 경제성장률 및 교역증가율의 3개년도 이동평균 추세 추이 >



< 세계 교역탄성치 (교역증가율/경제성장률)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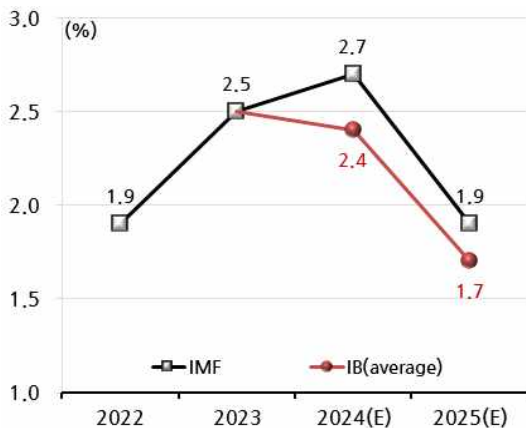


자료: 현대경제연구원(IMF 통계 -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4를 이용한 계산).  
 주: 경제성장률 및 교역증가율은 3개 연도 이동평균.

○ (핵심 수출 시장인 G2의 불확실성) 우리 수출의 약 42%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 경제의 방향성에 불확실성이 존재

- 우리 수출 전체에서 차지하는 미·중 시장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경제의 향방이 우리 수출 경기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
  - 미국과 중국 시장에 대한 수출은 2023년 기준으로 전체 수출의 42%이며,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23.7%(중국 본토 19.7%, 홍콩 4.0%), 대 미국 수출 비중은 18.3%에 달함
  
-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에 국제기구와 민간의 시각차가 존재하면서 미국 경제의 방향성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 IMF는 최근 2024년 미국 경제성장률을 2023년(2.5%)보다 높은 2.7%로 예측하였는데, IB들은 평균 2.4%로 소폭 하락을 전망함
  - 한편, IMF나 IB나 모두 2025년 경제성장률이 2%를 하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는 추세적으로는 이미 미국의 경기 고점이 형성되었거나 조만간 형성되고 경기가 내려가는 방향임을 시사함
  
- 중국 경제의 최근 실물 지표가 미약하나마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나, 중국 경기 회복의 관건인 주택시장의 조정이 장기화되고 있어 중국 경제의 방향성에도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존재

< 미국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IMF, Bloomberg.  
 주: IB 전망치는 약 60개 투자은행 전망 평균치.

< 중국 주택가격지수 증가율 추이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중국 国家统计局 통계를 이용한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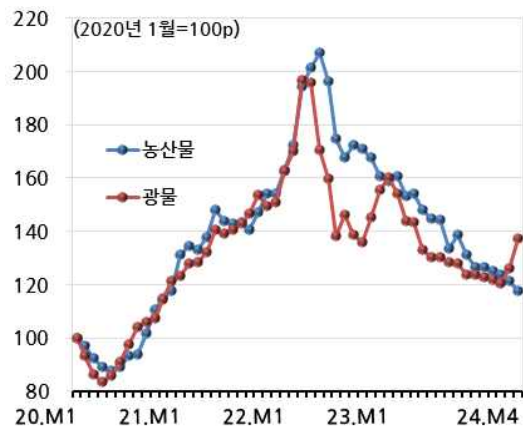
- (지정학적 리스크의 지속) 최근 국제유가나 국제원자재가의 랠리는 보이지 않고 있으나,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글로벌 공급망에 다시 문제가 발생하면서 교역 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상존
  - 최근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지역의 갈등이 완화되는 분위기이기는 하지만, 우발적 사건의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그 경우 원유 생산과 수송의 차질로 재차 '오일 쇼크'가 나타날 여지가 존재
    - 두바이유 가격은 2022년 3월 일간 가격으로 배럴당 약 128달러까지 상승한 바가 있으나, 최근에는 배럴당 80~90달러의 박스권 조정을 받고 있음
    - 이스라엘-하마스 간 교전, 예멘 후티 반군의 상선 공격, 이스라엘-이란 간 갈등 등의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중동 지역의 정세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임
  -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향 안정화가 이어지고 있으나, 생산 여력이 시장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불안정한 수급 상황이기 때문에, 이상기후나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상존
    - 3월과 4월에 들어 광산물 원자재 가격이 반등하고 있는데, 이는 팬데믹과 고금리 영향 등으로 채굴, 정제 시설에 대한 투자가 크게 감소하여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 두바이 유가 추이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페트로넷 통계를 이용한 도시).

< 국제 원자재 가격지수 추이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World Bank 통계를 이용한 계산).

○ (미국의 중국에 대한 디리스팅) 최근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어, 우리의 직접적인 대중 수출 위축과 미·중 갈등에 따른 세계 교역 침체를 경유한 간접적 수출 경기 둔화 압력이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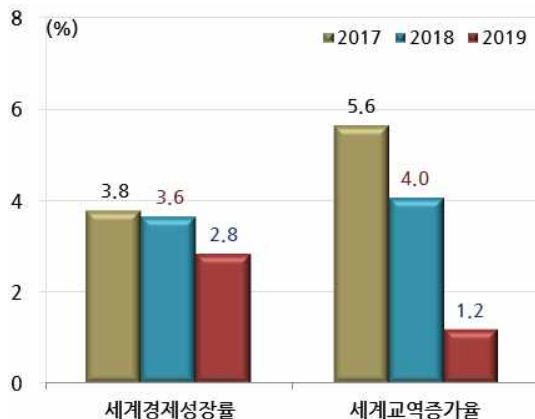
- 트럼프 노믹스 2.0의 가능성과 미·중 2차 관세전쟁에 따른 세계 교역의 위축 우려

-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중국에 대해 수입관세율을 60%까지 높이겠다고 언급함
- 트럼프는 2018년 대중국 수입관세율을 평균 3% 수준에서 2019년 21%까지 높였었는데, 당시 세계 경제성장률은 2017년 3.8%에서 2019년 2.8%로 하락하였으며, 세계 교역증가율도 같은 기간 5.6%에서 1.2%로 급락함
- 이에 따라 한국의 전체 수출 증가율은 2017년 15.8%에서 2019년  $\Delta$ 10.4%로, 대 중국 수출 증가율은 같은 기간 14.2%에서  $\Delta$ 16.0%로 급락함

-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규제 강도도 경쟁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미·중 간의 관세전쟁에 따른 글로벌 교역 침체가 예상보다 이른 시간에 시작될 가능성이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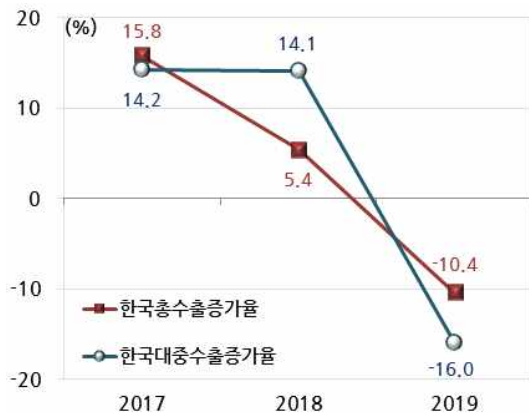
-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의 4배인 100%로 올리는 조치를 단행함
- 이에 중국은 수입차(대형 배기량 엔진)에 대한 관세율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2017~2019년 세계 경제성장률 및 교역증가율 추이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IMF 통계를 이용한 도시).

< 2017~2019년 한국 총수출 및 대중 수출 증가율 추이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한국은행 및 관세청 통계를 이용한 도시).

#### 4. 하반기 수출 경기 전망과 시사점

- (하반기 수출 경기 전망) 전반적으로 올해 수출 경기는 작년의 침체를 벗어나는 회복 국면에 위치할 것이나, 하반기의 대외 여건 전개 방향성에 따라 회복력의 강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
- 최근의 수출 경기 및 예상되는 리스크 요인들은 지난 1월 전망 시점에서의 전제 조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 수출 전망을 유지
  - 연간으로 수출 증가율은 2023년  $\Delta 7.5\%$ 에서 2024년 9.3%(1월 현대경제연구원 경제 전망치 유지)로 예상됨
  - 단, 상·하반기별로 보면 기존 현대경제연구원의 관점은 상반기 중 반도체와 이외 품목들의 수출이 동행성을 가지고, 하반기에 들어서는 역(逆) 기저효과 때문에 증가율이 낮아지는 상고하저의 흐름이었음
  - 그러나, 수출 경기 선도 품목인 반도체와 다른 품목 간의 수출 경기에 시차가 존재하여, 반도체 이외 품목의 수출 회복력이 하반기에 집중이 되는 경기 흐름을 가질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현대경제연구원의 기존 예측치(2024년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12.5%, 하반기 6.2%)에서 2024년 상반기 수출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9.4%, 하반기 수출 증가율은 9.3%로 수정 전망함

< 현대경제연구원 2024년 수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 전망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E)		
		상반	하반	연간	상반(E)	하반(E)	연간(E)
수출 증가율 (%)	6.1	$\Delta 12.4$	$\Delta 2.4$	$\Delta 7.5$	9.4	9.3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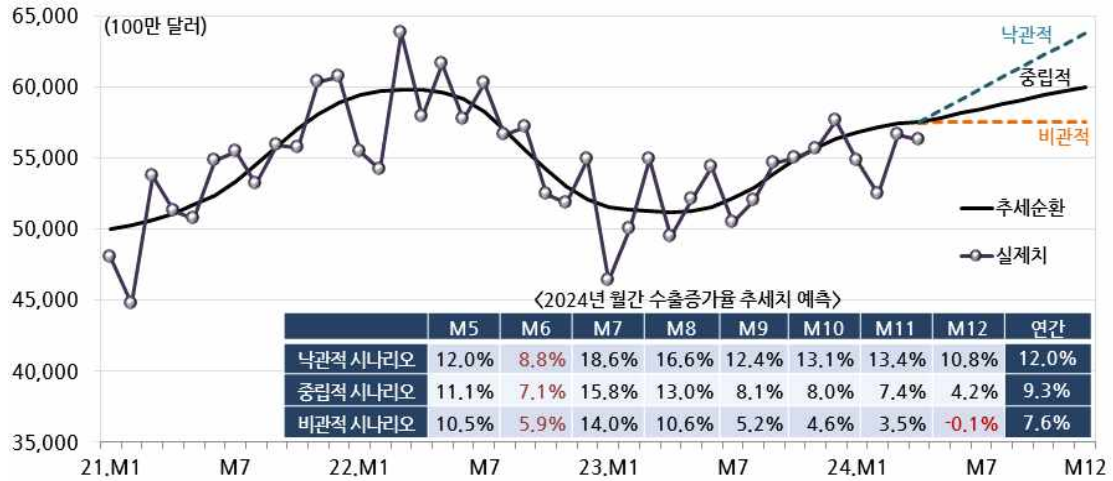
자료: 실적치는 관세청, 2024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다만, 언급된 수출 경기 리스크 요인들의 발현 여부에 따라 수출 경기의 리질리언스(resilience) 강도에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
  - 낙관적 시나리오(12월 638억 달러 - 기존 월간 최대치 추세 가정)의 경우 대체로 월간 두 자릿수 증가율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중립적 시나리오(12월 600억 달러 - 추세순환 최대치 추세 가정)의 경우, 9월부터 수출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보임
- 비관적 시나리오(현 추세치 575억 달러 유지)의 경우 12월 중 마이너스 성장까지도 가능함

< 월별 수출 순환 추세 식별 및 추세치 전망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 주: 1) 추세순환법을 이용하여 추정  
 2) 월간 수출 증가율 예측값은 실제치가 아니라 추세치(계절 요인과 이상기후, 조업 일수 변화 등의 일시적 요인을 제거) 기준이기에 실제 발표되는 실적치와 차이가 존재함.

### ○ 시사점

첫째,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수출 경기 회복세가 미약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회복 강도의 강화를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

- 올해 미국과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작년보다 하락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분절화가 심화됨에 따라 국제교역의 활력이 충분치 않아 수출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약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임
- 특히, 비관적 시나리오인 미국 경제의 침체 및 중국 경제의 회복 지연 동반 시 세계 경제의 예상치 못한 위기 가능성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필요함

- 따라서 최근 대외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리스크 관리 중심의 정책 비중을 제고하고, G2 이외의 적극적인 시장 공략, 원자재·소재·부품·장비의 공급망 안전성 강화 등을 통해 시장 접근성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임
- 한편, 아직 해외 수요가 견조하지 않다는 점과 고금리에 따른 유동성 부족이 기업 활동의 걸림돌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자금 여력이 취약한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시장 진출 및 금융·세제 등의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둘째, 미국의 정치 불안정성에 따른 포퓰리즘 확산이 가져올 시장의 규제 강도 변화와 미·중 갈등 격화에 따른 시장분절화(경제블록화) 심화 가능성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

- 미국이 정권 교체기에 들어섬에 따라 미 통상 당국이 자국 기업 보호와 자국민의 일자리 창출에 민감해지는 상황임
- 따라서 미국의 통상 정책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모두 동원하여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급선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셋째, 수출 경기의 회복 강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출 회복세가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응하여 내수 부문의 경기 안전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 최근 흔히 언급되는 수출 주도의 경기 회복은 아직도 존재하는 다양한 글로벌 리스크들이 안정화가 된다는 전제에 근거함
- 그러나, 여전히 글로벌 리스크들이 상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수출 경기를 위협할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 경기의 회복만을 바라보는 경제 정책은 지양될 필요가 있음

- 즉, 소비 활성화를 위한 미시적 대응 노력과 기업 투자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투자 유인 정책 등을 통하여, 내수 의존적 섹터의 건전성과 내구성을 높여야 할 것임
- 거시적으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이제는 ‘물가 안정’과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기초를 고수하는 데에서 한 발 벗어나, 급변하는 경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적극성이 요구됨
- 특히, 통화정책의 경우 미 연준의 피벗에 앞선 금리 인하가 자신이 없다면, 최소한 비전통적 방법의 통화정책인 ‘포워드가이던스’를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이라도 줄여주는 노력이 필요함 **HRI**

주 원 경제연구실장(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